



보건복지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발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를 통해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외에도 질환 구분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의료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급여 추진 대상은 3,800여개로 미용·성형을 제외한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모든 비급여 항목은 단계적으로 전면 급여화 됩니다. 단, 가격이 높아 효과가 떨어지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30~90% 차등하여(현행: 50%, 80%)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를 통해 급여 여부를 결정 할 예정입니다. 다만, 약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선별등재¹ (positive)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30%~90%)를 도입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기존의 비급여 해소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가 발생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비급여감축 인센티브 도입하여 신포괄 수가제² 적용 의료기관을 현재 공공의료기관 42개에서 2022년까지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한 200개 이상으로 확대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항목은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 급여로 편입 되도록 할 예정이며, 남용 우려가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실시 의료기관을 제한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 발표는 병원 및 가계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산업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재 비급여로 사용되고 있는 치료재료들의 급여화가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의료기기 업체들은 치료재료 등재 시 보다 전략적인 접근 방법의 수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미 급여 및 신의료기술로 고시 된 항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이넥스는 헬스케어 시장진입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제도의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정확하게 시행하는 기업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언제라도 문의 하여 주십시오.

¹ 가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

²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를 묶어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 하는 방식

사이넥스 서비스

사이넥스는 의료기기를 비롯한 보건의료제품의 시장진입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영역]

- 의료기기 수입/제조 품목허가
- 해외 인증
- 보험등재 / 신의료기술평가
- 제조 품질시스템 구축 (GMP 적합인정)
- 임상시험 (CRO)
- 시장 조사

담당자 연락처

1. 의료기기 보험등재, 신의료기술평가 문의: 차지민 차장 (jmcha@synex.co.kr)
2. 기타 문의: 이성민 대리 (smlee@synex.co.kr)

more about Synex >>



Synex Newsletter는 ㈜사이넥스에서 보내드리는 보건의료시장 전문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국내 전문지와 주요기관이 발행하는 관련 자료들을 매일 검색하여 보건의료제품 관련 사업에 필수적인 정보를 선별하여 알려드립니다.
(06223)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30 아세아타워 10층 / TEL : 02-6202-3300 / FAX : 02-6202-3302
Copyright 2013, Synex Consulting Ltd. All Rights Reserved.